

“청소년에 힘되는 상담사 되고 파”



김은지 광주 청소년 상담사

심리학과 졸업 후 3년째 상담복지센터 근무 “상담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 가슴 아파”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3년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지(30·여)는 하루에도 2~3팀, 한 팀당 1시간씩 상담을 하며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마주하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거듭했다.

고등학교 시절 진로도 심리상담 방향으로 결정한 뒤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는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

부를 졸업하기 전까지 전공수업은 물론 교양수업까지 열심히 들었다. 어떤 수업이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이론지식을 쌓아가던 어느 날 실습을 나간 김씨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실습에서 미술치료도 하고, 집단상담·개인상담 등을 했던 그는 실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상담을 해주기에 부족이라는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김씨는 그러한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대학 졸업만으로 풀지 못한 지식을 대학원 진학으로 해결했고, 상담에 필요한 기술들은 실습을 나갔을 때의 경험을 익혀나갔다.

그렇게 3년 전인 지난 2015년,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취업하게 됐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고민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고 있는 김씨다.

그는 아직까지 대인기피증에 빠진

여대생과 실업계와 인문계를 고민하는 중학생을 상담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상담을 시작한 직후 대인기피증이 있던 여대생은 남자친구가 생겼고, 중학생은 자신의 꿈을 위해 인문계로 진학했는데, 그 후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어서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씨.

물론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싫어 가족을 일삼는 한 학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학생은 부모님이 집에서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길 원하지만 부모님은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맞벌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물론 상담을 통해 그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었음은 모르지만 김씨는 결과가 좋지 못한 상담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앞으로 상담사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김씨는 “지금 내 나이가 청소년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나이라서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만 앞으로 중년이 된다면 성인·노년층도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어떤 사람을 상담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은 청소년들이 크든 작든 고민이 있을 때 항상 연락할 수 있도록 24시간 열려 있다”며 “어떤 고민이든 혼자서 풀려고 하면 힘이 든다. 고민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해주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년들과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만 앞으로 중년이 된다면 성인·노년층도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어떤 사람을 상담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은 청소년들이 크든 작든 고민이 있을 때 항상 연락할 수 있도록 24시간 열려 있다”며 “어떤 고민이든 혼자서 풀려고 하면 힘이 든다. 고민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해주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장성고 ‘수능 만점자’ 4년만에 배출

“다독·자주적 문제해결 능력이 비결”

장성고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한 결과 장성고 3학년 문과계열 허 모군(18)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

영역별로 국어 150점, 수학 나형 139점, 영어 1등급, 사회탐구(동아시아사 65점·세계사 66점), 한국사 1등급이다.

허군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과목별로 취약했던 부분을 방과후활동 수업으로 보충했으며, 사설학원은 다니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와 부딪히면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던 습관이 전 과목 만점의 비결이었다.

순천이 고향인 허군은 현재 서울대 경제학과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장성고에서는 4년 전인 지난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문과 만점자를 배출했다.

양창열 담임교사는 “허군의 많은 독서량과 자주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수능 만점의 비결인 것 같다”며 “30년 교직생활하면서 담임을 맡은 제자가 처음으로 수능 만점을 받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조선대 혁신위 공식 활동 돌입

오는 12일 전 교직원 대상 운영방향 공청회

조선대 혁신위원회가 4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총장 거취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대학 안팎 분위기를 다잡을 방침이다.

조선대 혁신위원회는 이날 본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하고 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혁신위에는 법인 관계자 2명,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창회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다.

대학 특성화·학사 구조화 행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개혁방안, 대학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교직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한다.

혁신위는 조만간 2차 회의를 하고 오는 12일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위 운영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인수 혁신위원장은 “국내 유일의 민립 대학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한다는 사명감으로 직분에 임하겠다”며 “구성원들간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존중과 합의의 정신으로 혁신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이 아닌 역량강화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후 강동완 총장의 진퇴를 놓고 구성원 간 갈등을 보인 끝에 이사회는 최근 강 총장을 직위 해제했다. /서미애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송갑석 의원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광주지검 공안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쟁후보를 2차례나 전략공천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이런 주장을 유권자에게 퍼뜨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 서구갑이 여성전략공천 지역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주당이 여론조사 1위였던 송 의원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후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송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광민 기자



동구 어린이 건강교육 인형극
광주시 동구는 4일 오전 꿈나무어린이집에서 생명사랑 아토피·천식예방 어린이 건강교육 인형극 “아리와 키크키크”를 공연했다. /동구청 제공

“얼굴 가린다고 모를 줄 알았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빈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사건현장 폐쇄회로(CC)TV에 자신의 이동경로가 고스란히 담기면서 결국 쇠고랑.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47)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30분께 광산구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5만원과 귀금속 9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주택 5곳에서 현금 392만원과 귀금속 6점(약 240만원 상당), 자전거 1대를 훔쳐 달아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김씨에게 “모자와 마스크로 아무리 얼굴을 가려 봤자 사건 현장에는 증거가 남는다”고 일침. /윤영봉 기자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